[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(10/4)]

이정환 보좌관 010-5415-4185

청년재직자 공제사업 축소해놓고 '플러스' 간판 달아

청년재직자 매월 12만원 내면 5년 만기 때 3,000만원 정립
목표 초과달성, '양호·탁월' 평가, 2년 초과근속, 기업 인력난 해소
기업·청년 10명 중 9명은 "만족, 장기재직 도움, 사업연장해야"
'기간 2년↓, 인원 3만명↓, 적립금 1,200만원↓, 예산 1/16 축소 '
전 정부 사업 이유로 정치적 축소 … 연장 또는 확대 시행해야

■ 문재인 정부때부터 시행되어 오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이 내년부터 '플러스' 사업으로 개편할 예정이지만 실상은 규모가 대폭 축소된 '마이너스' 사업이다.

○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·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(1), 기업(1.7), 정부(1.5)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. 청년재직자가 매월 12만원을 내면 기업이 20만원, 정부가 18만원을 불입해 주는 사업이다.

○ 최근 3년 동안은 매년 목표인원을 100% 이상 초과 달성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. 2021년 일자리 사업 평가등급 '양호', 2022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평가(국무조정실)에서 결과 '탁월'로 평가받았다. 해당 공제사업 미가입과 비교해 2년 4개월을 추가로 근속하는 효과를 보였다.

○ 중소기업, 청년 모두의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다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입기업은 91%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. 직원의 근무만족도도 87.3%로 높았고 89.4%가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일 정도도 긍정적이었다.

○ 더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기여했고, 지역의 중소기업과 청년재직자가 참여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.

○ 그런데 2022년에 (일몰) 종료되고 2023년부터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'플러스'라는 이름으로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.

○ 사업명에 플러스를 붙였지만 사업은 오히려 축소됐다. 기간은 2년(5년→3년), 지원대상은 3만 명(4만명→1만명), 적립금은 1,200만원(3,000만원→1,800만원), 예산은 무려 2,586억 원(2750억원→164억원)으로 대폭 축소했다. 플러스(+) 사업이 아니라 마이너스(-) 사업이다.

○ 잘되는 식당을 폐업시키고 '확장개업'이라는 간판을 달고 홍보하고 있지만, 실상을 들여다보면 탁자, 수용인원, 메뉴를 줄여놓은 것과 같다.

○ 성과와 만족도가 좋고,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고,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축소해서야 안된다.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지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.

○ 중기부는 청년들이 금융위원회의 신규사업인 청년도약계좌로 넘어갈 것으로 보아 공제사업을 축소했다고 답변하였다.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시행할 청년도약계좌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 목적과 대상부터가 다르고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.

○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매월을 12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20만원, 정부가 18만원을 정립해 주는데 비해,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40~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%(24,000~42,000원) 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주는 수준에 불과하다.

○ 그런데도 성격이 다른 청년도약계좌 때문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.

○ (기업부담 및 해지율 대책 관련) 중기부는 적립금 부담과 높은 해지율의 대책으로 적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고 한다. 하지만,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1%도 되지 않아 기간 축소의 이유가 될 수 없다.

○ 기업부담 및 해지율 대책으로 기간을 단축했다면, 대상 규모를 확대했어야 옳다. 권고사직, 폐업·해산 등 기업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.

○ 만약에 사업기간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지원 규모라도 확대했어야 했다. 내년도 예산 심의 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.

참고 자료

[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]

■ 추진 개요

- (추진내용) 청년근로자, 중소·중견기업,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

  * 적립금(5년, 만원) : 청년 720(월 12), 기업 1,200(월 20), 정부 1,080(3년, 7회)

- (가입대상) 중소·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
- (사업기간) '18.6 ~ '22.12

■ 추진 실적

연도	목표인원	선정인원	실적	예산(억원)	비 고
2018	40,000	36,031	90.1%	897	
2019	40,000	37,358	93.4%	2,027	
2020	30,000	32,087	107.0%	2,392	가입목표 초과달성
2021	30,000	30,422	101.4%	3,134	일자리사업 평가 '양호'
2022	20,000	20,906	104.5%	2,750	국조실 청년지원사업 평가 '탁월 ('22.6)
<합계>	160,000	156,804	98.0%	11,200	

■ 사업 평가

▶ 설문조사 결과 (중진공 가입기업 612개사 대상)

- 가입기업 만족도 91%, 기업경영성과 도움 73.4%
-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도움 85.8%, 공제 도입 후 직원 만족도 증가 87.3%
- 가입기업 확대, 사업기간 연장 통해 지속해야 89.4%,

설문조사 개요

- ’(주)한국갤럽조사연구소‘를 통해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
- (조사대상)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대표자(혹은 인사담당자) 612명
- (조사기간 및 방법) 21.4.30 ~ 21.5.7 (8일간), 유선조사
- (표본오차) ±3.93%p(95% 신뢰수준)

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요약 】

조사문항	긍정응답(%)	조사문항	긍정응답(%)
① 전반적 만족도	91.0	⑤ 기업 이미지 영향	85.1
② 근로자 장기재직 도움 정도	85.8	⑥ 추가가입 의향	83.0
③ 기업 경영성과 도움 정도	73.4	⑦ 사업개선 사항	정부지원확대 (47.9)
④ 직원 근무만족도 증진 정도	87.3	⑧ 사업 연장 필요성	89.4

[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]

■ 추진 개요

- (배경) 현 사업 종료 후 신규사업으로 추진
- (목적) 청년근로제에 대한 **자산형성 지원**을 통해 중소기업 **핵심인력의 장기재직**을 촉진하고 **인력유출 방지**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
- (방향) 기업·청년의 적립금 부담과 가입기간을 개선한‘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’로 **고도화**하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

■ 현행사업 및 신규사업 비교

구 분	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(현행)	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	비교
사업기간	2018.6. ~ 2022.12.	2023.1. ~ 2025.12.	2년⬇
대상 인원	누적 15만 6,804명 / 누적 연평균 평균 4만 명	연도별 1만 명	3만명⬇
적립금	5년 만기, 3천만원	3년 만기, 1,800만원	1200만원⬇
적립금 비율	청년 1 vs 기업 1.7 vs 정부 1.5	좌동	
정부 예산	2022년 2,750억원	2023년 164억원	2,586억원⬇

□ **해지 현황**

연도	귀책구분	해지사유	해지인원	해지율 (신청인원대비)
2020년	기업귀책	경제적부담	171	0.5%
		권고사직	1,789	5.6%
		폐업/해산	724	2.3%
		기타	475	1.5
	근로자귀책		8,222	25.6
2021년	기업귀책	경제적부담	184	0.6%
		권고사직	2,230	7.3%
		폐업/해산	579	1.7%
		기타	579	1.9%
	근로자귀책		1,273	37.1%
2022년	기업귀책	경제적부담	187	0.9%
		권고사직	1,662	7.9%
		폐업/해산	1,062	5.1%
		기타	448	2.1%
	근로자귀책		8,791	42.1%
총합계			46,270	29.5%